

자원봉사 인정 및 보상과 지역의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우 정 자*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의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성별, 연령, 교육, 텔레비전시청 시간, 신문구독시간, 자원봉사 참여시간의 변수로 통제해도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자원봉사자 186명이었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지역사회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인정과 보상을 받을수록 규범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규범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봉사 참여 기간은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관련 조직이 인정과 보상의 행정적 관리를 잘 할수록 규범의식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사회자본, 자원봉사,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 루터대학교

1. 서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 및 사회구성원의 협력을 위해서 사회자본의 형성과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과 같은 사회자본이 발달되어 있다면 구성원이 조직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일찍이 경영학 분야에서는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미 경영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기업이 사내의 보상 정책을 통하여 조직 내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는 제안과 조사 검증을 해왔다. 인정과 보상 정책은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헌신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Campbell 1994; Ritter and Taylor 1997; Leana and Van Buren 1999), 기업 내 사회자본을 건설한다(Bigley and Pearce 1998; Mcknight 1998). 이처럼 경영학에서 인정과 보상이 조직 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던 반면에, 사회복지학에서 인정과 보상이 지역의 사회자본 건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본 연구는 기업에 관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개인에게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면 지역의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증진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개인에게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면 지역의 사회자본이 형성·증진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합리적 선택이론¹⁾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다.

1) 헤chter(Hechter 1987), 히스(Heath 1976), 올슨(Olson 1965) 등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행위 주체자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최대이윤추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규칙과 질서에 순응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성원 중의 일부는 무임승차하려거나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관점은 조직이나 그룹이 협력과 사회자본을 창출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천과 도구개발의 여지를 열어

이 이론은 인정이나 보상이 규범이나 가치 즉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Hechter 1987; Heath 1976; Olson 1965).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사회가 인정과 보상의 기제를 가지며 그 기제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가치와 규범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도 개인에게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면 개인은 지역사회에 더욱 헌신하고 지역의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증진될 것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미 현장에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사회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도,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이강현 외 2001; 이강현·정진경 2006). 그러나 이 주장을 조사를 통하여 검증한 바는 없다. 또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의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진 바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원봉사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들은 주로 박애, 이타성, 개인 심리발달이론, 임파워먼트 이론 등에 한정되어 왔다. 이에 비해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관련 연구 내용은 자원봉사관리 매뉴얼 수준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을 합리적 선택이론의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칫 이 관점은 자원봉사의 이타적 동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자원봉사의 이타적 동기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른 인간의 이익 극대화 경향과 상호모순 된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을 전제로 한 본 연구의 이론 선택이 적절한 것인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인간의 이익추구 속성은 인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 관점을 취하여도 자원봉사의 이타적 속성을 부인하게 되지 않으며 연구의 자체모순에 심각하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관점에서 조명하여 자원봉사 이론의 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회자본 연구들은 가치를 중요시하는 규범주의²⁾ 관점에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가치를 내포한 환경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 관점은 개인이나 조직과 같은 행동주체는 행동의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목적이나 방향을 잡는 행동의 내적 원동력을 가지지 못한다(Coleman 1988, 95)고 비판받을 수 있다. 기존 사회자본 연구는 실천적으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조직의 주체성과 활용도구 부재라는 약점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소홀함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정과 보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지역 사회자본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사회자본 연구에서 지평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조직의 역할과 구체적 실천도구의 중요성과 의미를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자본 관련 선행연구

(1) 사회자본 구성요소와 지역의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구성요소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자

2) 토니스(Tönnies 1957), 파슨스(Parsons 1973) 등이 대표적인 규범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규범이나 문화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의해 사회화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사회화가 규범을 내재화시키는 주요 기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관점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탈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고 신고전 경제학파나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에 의해 비판받는다.

본 관련 연구를 검토하면 사회자본은 규범(norm), 신뢰(trust), 사회적 연계망(network)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성 요소에 의무(obligations), 기대(expectations), 신뢰할 수 있음(trustworthiness), 정보 흐름(information channels), 규범(norms)을 포함시키거나(Coleman 1988, 102-105), 헌신(commitment), 정체성(identity)을 포함시키기도 한다(Veenstra and Lomas 1999).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대체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다(최종혁 외 2010).

대체로 관련 연구자들은 퍼트남(Putnam 1993)의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는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이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측정할 수 있도록 도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계(契) 조직(rotating credit association)의 관찰을 통하여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으로 사회자본을 설명한다. 규범은 계에서 나타나는 서로 돕는 협력적 노력 혹은 상부상조를 지칭한다(안청시 외 2006, 282). 보다 더 의미를 명확히 하자면 협력적 노력이나 상부상조는 이타심 그 이상을 넘어서는 ‘포괄적 호혜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내가 오늘 베푸는 혜택이 미래에 보상받으리라는 상호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안청시 외, 289).

남에게 나의 자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언젠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다. 계는 항상 부도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도와 불확실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성향과 선택, 결과 등을 알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선택을 상대방이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다(안청시 외, 287). 그러므로 상호 호혜성의 규범이 지켜지기 위해서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계망이 필요하다. 호혜적 관

계가 밀접한 사회적 연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신뢰 평판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과 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안청시 외, 283).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 때, 규범을 지킬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사회적 연계망을 통하여 검증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한다. 사회적 연계망은 신뢰를 검증하고 규범을 확장하는 기제의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의 필수 요소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사회자본의 신뢰, 규범, 사회적 연계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질이기에 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퍼트남(Putnam)에게 사회자본이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의 속성을 지칭한다(안청시 외, 281). 콜맨(Coleman)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회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에서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자본에 의해 특정행위를 유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자본은 행위자 사이의 관계의 구조에 있다(Coleman 1988). 즉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내재되어 있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나 가치로서 협동 능력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중요 구성요소는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성 요소는 어느 단위의 사회자본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표현적 내용이 달라진다. 사회자본의 분석단위는 사유재와 공공재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최웅 2007, 10). 사회자본이 사회적 지원관계에서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파악되는 경우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상호협조와 공익을 증진시키는 자원으로 이해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사회자본을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주로 가족을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에서 나타난다. 아동 사회자본 연구(Coleman 1988; Croll 2004; 김연희·김선숙

2008)는 가족이라는 환경을 중심으로 부모의 사회적 연계, 부모 및 형제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측정도구를 구성한다.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 부모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자본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이때 사회자본은 개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른 사유재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반면에, 지역사회나 사회를 연구의 분석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신뢰나 규범의 측정도구가 정부나 사회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역주민의 제도나 정부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에 헌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측정도구가 정의된다(박희봉·김명환 2000; 소진광 2004; 서혜숙 2006; National Civic League 1993). 이때 사회자본은 지역사회나 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협조나 공익을 증진시키는 자원으로서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사회의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회자본을 지역의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사회자본은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형성되어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영향을 주는 자본으로 사회자본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고 분석하는 연구보다는 사회자본이 개인, 조직, 지역사회의 성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더 활발한 듯 하다. 이는 사회자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가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이 사회자본의 범위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개인, 가족, 학교, 기업, 지역사회 등

설정하는 사회자본의 범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 요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지역의 사회자본 관련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지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성(性)과 연령이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거나(Kawachi 1997; Veenstra and Lomas 1999) 주장된다(오홍석 2002). 남성이 여성보다 신뢰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고 집단 내 협력도 높으며 정보공유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박희봉·김명환 2000). 그리고 퍼트남(Putnam 1995a)은 General Social Survey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육, 연령, 신문구독률, 텔레비전 시청률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받은 연한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 참여도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가 교류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참여나 사회신뢰 경향이 높아지는데 이는 미국 전후세대의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텔레비전 시청률이 낮고 신문구독률이 높은 사람들은 시민참여율과 신뢰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이 여가 시간을 공적인 활동보다는 사적인 활동으로 유도하며, 근대화 이후 공교육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이 미국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지역의 사회자본 연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가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 사회적 신뢰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Putnam 1995a; 안청시 외 2006),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주민간의 규범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성과에도 영향을 준다(Putnam 1995b, 66).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참여 중에서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집단 내 협력 및 정보공유의 정도가 높다(박희봉·김명환 2000). 또한 자원봉사 참여는 사회 및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형성과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철희 2007).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가 지역 사회자본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조직의 사회자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다. 한 연구 결과, 기업 임직원의 자원봉사참여가 조직 내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봉 2002). 다른 연구에서, 기업의 자발적 모임이나 이벤트 참여와 같은 참여는 조직 내의 사회적 연계,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참여 활동은 사회적 연계를 증진시키고 (Van Dyne et al. 1994), 임직원들의 상호호감, 사회자본 신뢰, 정체성, 우정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제안되고 검증된 바 있으며(Insko and Wilson 1977; Hogg and Terry 2000), 그리고 기업 내에서 사회참여가 조직 응집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Mullen and Copper 1994). 사회자본 연구에서 대체로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는 사회자본과는 분리된 개인의 시민행동(citizenship behavior)으로 간주되고 지역 혹은 조직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Coleman 1990; Putnam 1993; Bolino et al. 2002).

또한 사회와 조직의 인정 및 보상과 같은 관리(management)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이나 경영학의 한 연구 분야에서 취하는 입장으로서 이 관점은 조직이 관리의 노력을 기울일수록 사회자본이 형성, 유지, 증진된다는 것이다 (Hechter 1987; Madhok and Tallman 1998; Parkhe 1993; Ring and Van de Ven 1994). 인간은 사회에 대한 헌신을 외면하거나 무임승차의 경

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순응과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순응을 유도하는 통제가 있어야 한다(Hechter 1987, 49). 파트너 간의 협력에 대한 기회주의를 감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Parkhe 1993, 233-234)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에 순응하도록 하는 사회는 인정과 보상의 기제를 두거나 관리하게 된다.

국가 혹은 지역사회를 분석의 단위로 연구하는 헥터(Hechter 1987)는 긍정적 제재인 '보상(reward)', '상징적 제재(symbolic sanctioning)', '긍정적 제재(positive anctioning)'를 인정과 보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무료음식, 건강검진, 무료관람권, 상(prize)과 같은 비화폐적 보상을 사용하여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혈하도록 유도한다(Timuss 2002, 77-89). 또한 '상징적 제재'나 '긍정적 제재'는 명예, 권위, 부끄러움을 통하여 제재하는 것인데(Hechter 1987, 152-157), 구성원이 그룹에 순응하면 명예와 권위와 같은 상을 주고, 순응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서 구성원이 그룹의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헥터(Hechter 1987)나 티트머스(Timuss 2002)는 보상이나 시상과 같은 긍정적 제재인 인정과 보상을 구성원들의 지역 사회자본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통제 및 관리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검증은 지역사회 보다는 오히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기업에서 높은 임금이 임직원들의 이직율을 감소시키고 조직에 대한 헌신을 증가시키며(Campbell 1994; Ritter and Taylor 1997; Leana and Van Buren 1999), 승진을 통하여 조직이 선호하는 가치와 행동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 내 사회자본을 건설한다(Bigley and Pearce 1998; Mcknight 1998)고 한다. 기업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참여, 수료증받기, 업무성과

에 대한 칭찬도 순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사용된다(Leifer and Mills 1996, 128). 기업의 보상이나 긍정적 제재와 같은 인정과 보상은 조직 내 사회자본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검증은 지속되어 왔다.

이는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해서도 인정과 보상이라는 관리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헥터(Hechter)나 티트머스(Timuss)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이나 시상과 같은 인정과 보상이 구성원들의 지역 사회자본 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 관련 선행연구

(1) 자원봉사와 사회자본

사회자본 연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연구에서도 자원봉사는 사회자본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원봉사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청소년 자원봉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지은(1997)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이타성 및 사회적 책임성 향상,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대, 문제해결 능력형성 및 대인관계 기술 증진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 개선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아동보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책임성이 더 많이 향상되었고(Hamilton and Fenzel 1988, 65-80; 권순미 2004, 76-79), 학교중심 봉사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교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자아 존중감과 지역사회 책임의식이 향상되었고, 학교에서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이타적 행동에 대한 열망

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witzer et al., 1995). 자원봉사는 개인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 등과 같은 가치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건전하고 능력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은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낳는다고 보고하였는데, 콘라드와 헤딘(Conrad and Hedin 1989)은 그 다양한 효과를 총망라하여 ‘개인적 성장’, ‘지적성장’, ‘사회적 성장’으로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사회적 성장을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 정치적 유능성, 민주시민의 참여정신, 다양한 삶의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평가를 가져오므로써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상을 통하여 자원봉사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도덕성발달, 학습 및 기술 향상 등의 개인 자질과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책임성, 민주시민 참여정신 등과 같은 사회적 자질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자질의 내용 중에서 ‘사회적 책임성’과 같은 내용은 사회자본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책임성을 사회적 목표의 향상을 위해 다른 사람과 기꺼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작용하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한다(Greenberger 1984; 조학래 1997에서 재인용). 사회적 책임성은 남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회적으로 발현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공통의 감정과 소속의 감정을 느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이 표현된다(김제니 2004). 사회적 책임성은 공동체의식의 발현으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상호 작용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성이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으로서의 협력의지와 활동이며 남을 돕는 활동이다. 사회자본과 비교하여 보면,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협력적 노력인 사회적 책임성은 사회자본 중에서 서로 돕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규범과 같은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규범은 상부상조이자 협력이며 남을 돕는 활동이고(Putnam 1993), 개인의 이익을 삼가하고 집합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Coleman 1988). 즉 규범은 협력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성과 유사하다. 따라서 자원봉사가 사회적 책임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즉 자원봉사가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지은(1997), 권순미(2004), 헤밀턴과 펜젤(Hamilton and Fenzel 1988) 등의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자원봉사는 사회자본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의 효과는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의 수상자들 대상 조사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주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기관을 연계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문성호 외 2009).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성과 자원봉사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성호 2010). 이를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사회 주변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자원봉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2001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자원봉사활동』이라는 책을 편찬한 바 있다. 이 책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사람들을 연계하고 사회자본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자산 증가를 촉진시킨다고 언급하면서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자본임을 밝히고 있다(Govaart 2001). 이성록(2000)도 자원봉사는 공공재를 유통시키는 재생산의 영역이며 사회자본의 시너지를 재생산하는 영역으로 본다. 주성수(2000)

도 자원봉사는 도덕성과 시민성을 회복하며 시민사회 건설에 밑거름이 되는 사회자본을 구축하는 일이고 매우 중요한 사회발전 전략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사회자본에 있으며, 자원봉사는 사회자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2)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긍정적 제재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자원봉사 관리 중에서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활동을 격려하는 인정과 보상은 실천과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된다(McCurley and Lynch 1996; 이강현 외 2001). 자원봉사 관련 연구에서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승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유무형의 것’이라고 규정한다(이강현·정진경 2006; 이강현 외, 2001). 또한 인정과 보상은 인적 자원의 유지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장희선 1995, 29).

장희선(1995)은 인정과 보상을 ‘공식적 수단’과 ‘비공식적 수단’으로 나누고, 김동배(1998)는 사고보장, 경력화, 경비지원, 포상수여, 각종우대로 자원봉사 보상을 체계화한다. 챔버(D.E.Chambers, 2000)는 인정과 보상의 다양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현금, 신용, 현물, 기회, 사회적 보상, 정서적 보상이라는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이강현·정진경(2006)은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 인정보상을 정리하였다.

‘현금’ 보상이인 교통비, 식비, 재료비는 봉사활동에 소비된 개인 회생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준 현금성 신용’, ‘현물’, ‘기회’도 일종의 비화폐적 보상제재로서 자원봉사자에게 공헌과 노고에 대하여 상품권, 할인쿠폰, 기념품,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격려해 준다. ‘사회적 인정’은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표창이나 자원봉사인증서를 줌으로써 그 활동

을 인정해주고, 취업과 입학 시에 가산점을 주고, 봉사내용과 그 가치를 언론매체에 홍보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다. ‘정서적 보상’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인정해주는 활동이다.

〈표1〉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의 종류

현 금	준현금성 신용	현물	기 회	사회적 인정	정서적 보상
-교통비 지급 -식비 지급 -봉사활동 재료비	-상품권 -할인쿠폰 -주차권	-기념품 -기타	-국내외행사 참여기회 -파티 참석기회 -교육훈련 참석기회 -새업무나 직위부여	-표창 -승진취업시 가산점 -인증서 -언론매체홍보	-감사편지 -언어적 비언어적 감사표시 생일파티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인정과 보상이 사회자본의 가치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긍정적 제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교통비, 식비, 재료비에 대한 ‘현금’보상을 보면, 이는 헥터(Hechter)가 말하는 보상제재와 유사하다. 이 보상은 그가 말하는 임금과 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보상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절대적 순응을 유도하는 통제는 아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에 소비되는 개인적 희생을 보상해줌으로써 자원봉사의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통제제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동기에 관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무료음식, 기념품 제공과 같은 비 화폐적 보상은 개인주의를 약화시키고 희생의 사회적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Titmuss, 77-89).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상품권, 할인쿠폰, 기념품, 기회 제공과 같은 ‘준 현금성 신용’, ‘현물’, ‘기회’의 인정과 보상은 사소한 것이지만 사회자본이라는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창, 승진 취업시 가산점 부과, 자원봉사인증서 부여, 언론매

체 홍보와 같은 ‘사회적 인정’도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창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순응에 대한 보상으로서 명예를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개인주의를 제거하고 사회적 가치에 더욱 순응하도록 하는 헵터(Hechter)가 말하는 상징적 제재이다(Hechter, 157). 승진, 취업, 입학 시에 가산점을 주는 ‘사회적 인정’은 개인에게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이익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주의를 제거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사회적 가치에 순응하도록 하는 헵터(Hechter)의 부가적 보상 제재라 할 수 있다(Hechter, 142). 언론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을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하여 주는 ‘사회적 인정’은 자원봉사자 개인에게는 명예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예를 가시화함으로써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협력이라는 규범정신, 신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모범적인 협력에 순응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헵터(Hechter)의 긍정적 제재의 역할과 동일하다(Hechter, 152).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중에서 감사편지를 주거나 생일파티를 열어 주는 것과 같은 ‘정서적 보상’도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함으로써 개인의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과 그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다. 정서적 보상은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영웅의 행동과 같은 고귀한 행동이자 정신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다. 정서적 보상은 개인의 이기주의를 약화시키고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욱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인 현금이나 가산점 부여, 준 현금성 신용, 현물, 기회의 비화폐적 보상과 표창이나 홍보와 같은 사회적 인정은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이 말하는 긍정적 제재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은 희생에 대하여 보상해주고 개인

주의를 약화시키고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서적 보상도 자원봉사를 인정하고 격려해줌으로써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의 가치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기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정과 보상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강현·정진경(2006)은 자원봉사센터와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실무자에게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의 주된 목적을 질문하였다. 조사에 응한 43개 조직 중에서 6개 조직은 자원봉사 인정 보상의 주요 목적이 ‘자원봉사 가치 증진’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원봉사자의 공헌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과 보상을 아끼지 않을 때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의 가치가 수호되고 자원봉사활동이 높이 평가된다(이강현 외 2001, 241). 따라서 자원봉사 인정 보상은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킨다(이강현·정진경, 106).

앞서 가에서 사회자본은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은 인정과 보상이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서의 연구와 이론을 통하여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사회자본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자원봉사 인정 보상이 개인을 자원봉사의 가치인 사회자본 요소에 순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 모형과 가설

이 연구는 관련 조직이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사회

회 사회자본도 증진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경영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보상 정책이 조직 내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는 제안과 조사 검증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단위에서 인정과 보상 정책이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들(Hechter 1987; 이강현·정진경 2006)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 연구에서는 인간관계, 보상과 승진정책, 리더십 등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 및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퍼트남(Putnam 1995a), 가와치(Gawachi 1997), 빈스트라와 로마(Veenstra and Lomas 1999), 박희봉·김명환(2000), 오홍석(2002) 등의 지역의 사회자본 관련 연구자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성, 연령, 교육, 텔레비전 시청, 신문구독을 통제변수로 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가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거나 검증되었다(Putnam 1995b ; 박희봉·김명환 2000; 강철희 2007; 이지은 1997; 권순미 2004; Govaart 2001; 이성록 2000; 주성수 2000). 지역의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 참여의 변수로 통제하여도 인정과 보상이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종속변수에 있어서 퍼트남이 제시하는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을 종속변수로 보고자 한다. 다양한 측면들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을 기본적인 핵심 요소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 모형에 따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지역사회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지역사회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지역사회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지역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인정·보상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조직의 자원봉사자가 조사 대상이어야 한다. 인정·보상의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조직의 자원봉사자를 조사대상으로 해야만 인정·보상의 수혜를 많이 받은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확률표집의 유의적 표집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 특성이 강한 연구이므로 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의적 표집방법에 의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 내에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잘 시행되고 있는 조직의 자원봉사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09년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서초구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1개의 구만을 선정하는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존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화와 가치에 따라 사회자본의 수준이 다르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의 이질적 문화 환경이라는 외생변수를 제거하고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자 1개 지역구로 조사지역을 제한하였다.

인정·보상의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자원봉사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서초구 자원봉사의 연계·조정 기관인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여 인정·보상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2곳, 장애인생활시설 1곳, 병원 1곳,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1곳을 추천받아 그 곳의 자원봉사자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자원봉사 담당자를 만나 조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내용을 숙지한 그 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 중에서 186부가 회수되었다. 기술통계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① 자원봉사 인정·보상

유화영(2001)의 설문문항은 정서적 보상과 비화폐적 보상 등이 제외되어 인정보상의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강현·정진경(2006)의 인정과 보상은 다양한 인정 보상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을 채택한다. 인정과 보상의 종류인 현금, 준현금성 신용, 현물, 기회, 사회적 인정, 정서적 보상 중에서 응답자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인정과 보상의 종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입된 인정보상의 종류의 수를 합한 값을 인정과 보상의 값으로 한다.

(2) 통제변수

①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측정에 있어서 퍼트남(Putnam 1995a)의 측정

도구를 채택하고 일부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성은 남성 1과 여성 0으로 더미 처리 하였다. 교육은 연한으로 계산하여 ‘초등학교 졸 = 6’, ‘중학교 졸 = 9’, ‘고등학교 졸 = 12’, ‘대학교 졸 = 16’, ‘대학원 석사졸 = 18’, ‘대학원 박사졸 = 21’로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서 대학교 1학년 1명에 대해서는 13으로 값을 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에 있어서 연령을 기입하도록 하고, 분석하였다. 텔레비전 시청에 있어서 하루 평균 시청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신문구독도 ‘전혀 읽지 않는다 = 1’, ‘주 1회 = 2’, ‘주 2회 = 3’, ‘주 3회 = 4’, ‘주 4회 = 5’, ‘주 5회 = 6’, ‘주 6회 = 7’, ‘매일 읽는다 = 8’로 측정하였다.

② 자원봉사 참여

박희봉과 김명환(2000)의 연구에서 ‘지난해 자원봉사에 참여하셨다면, 한 달에 평균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으로 자원봉사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유화영(2001)은 청소년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동안 자원봉사 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인가’, ‘자원봉사 참여 빈도’, ‘자원봉사는 1회당 몇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자원봉사 총 기간에 따라 사회자본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화영(2001)의 척도 중 일부를 채택하여 ‘그동안 자원봉사 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인가’로 측정하고 총 개월 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3) 종속변수

사회자본의 대표적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사회적 연계망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의 단위에 따라 다르다. 분석 단위가 가족의 사회자본인 경우에는 부모의 존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정의가 이루어진다(Coleman 1988; Croll 2004; 김연희·김선숙 2008). 또한 조직 내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측정할 경우

에는 조직구성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한다(김태선 2007; 오홍석 2002; 박희봉 2002; Bolino et al., 2002; Leana and Van Buren 1999).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자본 범위는 지역사회이므로 지역의 사회자본 관련 기존연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신뢰, 규범, 사회적 연계를 조작 정의하였다.

① 규범

연구자에 따라 지역사회의 규범을 인간존중, 준법성, 협동에 대한 태도로 보는가 하면(황영희 2000), 배려, 평등의식, 개방성으로 보기도 한다(양국진 2002). 박희봉과 김명환(2000)은 규범을 준법정신, 자발적 해결, 상호협력정신으로 보았다. 각 연구자들이 정의한 규범 개념이 너무 다양해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규범을 상호협력이나 서로 돕는 행위 정도로 제한하는 퍼트남(Putnam 1995a)과 서혜숙(2006)의 개념과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조작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의 개념이 규범과 다른 사회자본 구성요소와의 상호 설명을 비교적 이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퍼트남(Putnam 1995a)은 규범을 상호협력과 타인을 돕는 행위의 내용으로 간주하고, 서혜숙(2006)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규범의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문항은 ‘나는 이웃을 위해 일상적인 일을 도와 준 적이 있다.’, ‘나는 쓰레기나 오물을 주워 본 적이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웃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잘 해결하는 편이다.’, ‘나는 내가 속한 단체가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의견에 따르는 편이다.’, ‘나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시간이나 돈을 들이는 편이다.’로 하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규범의 값은 각 문항 값의 합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606으로 나타났다.

② 신뢰

지역사회 신뢰에 관한 측정도구를 보면, 큰 이견이 없는 듯하며 대

체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한다 (Fukuyama 1995; 서혜숙 2006). 미국의 National Civic League(1993)과 박희봉과 김명환(2000)의 신뢰 측정도구는 지역의 사회자본 관련 연구자들의 신뢰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나는 우리 지역사회 이웃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 친척 및 친구를 신뢰한다.’, ‘나는 우리나라 정부를 신뢰한다.’,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의 값은 각 문항 값을 합한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708로 나타났다.

③ 사회적 연계망

지역사회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사회적 연계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고 양과 질을 측정한다(Stone 2001; 서혜숙 2006; 김태준 2003; 김태선 2007). 개인적 측면으로는 개인적 목적이거나 사적 이익을 위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공익목적 을 위한 집단에 기초한 관계, 지역사회 및 제도와의 관계가 있다.

여러 관련 연구 중에서 서혜숙(2006)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계를 개인관계와 사회적 관계, 교류의 양과 질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므로 이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할 가까운 친구가 많은 편이다.’, ‘나는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많은 편이다.’, ‘내가 속한 단체는 모임을 자주 갖는 편이다.’,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 회비를 잘 내는 편이다.’, ‘내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은 다른 단체의 회원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다.’, ‘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연계망의 값은 각 문항의 값을 합한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703으로 나타났다.

4. 연구의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직별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조사 응답자는 총 186명이며, 병원 소속의 자원봉사자 52명(27.9%),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50명(27.0%), A복지관 자원봉사자 39명(20.9%), B복지관 자원봉사자 19명(10.2%), 장애인생활시설 자원봉사자 26명(14.0%)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35명(18.8%)이고, 여성이 151명(81.2%)으로 나타났다. 응답 인원 185명의 연령 분포에 있어서, 20대 28명(15.1%), 30대 19명(10.2%), 40대 41명(22.0%), 50대 73명(39.2%), 60대 23명(12.4%), 70대 1명(0.5%)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47.79세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있어서, 총 응답자 184명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자 1명(0.5%), 고등학교 졸업자 45명(24.2%), 대학교 재학 중 1명(0.5%), 대학교 졸업자 113명(60.8%), 대학원 석사 졸업자 21명(11.3%), 대학원 박사 졸업자 3명(1.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교육연한 평균은 15.27년이였다. 신문을 읽는 정도에 있어서, 응답자 총 184명 중에서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14명(7.5%), 주 1회 읽는 사람이 12명(6.5%), 주 2회 12명(6.5%), 주 3회 24명(12.9%), 주 4회 8명(4.3%), 주 5회 10명(10.2%), 주 6회 7명(3.8%), 매일 읽는 사람이 88명(47.3%)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에 있어서 응답한 183명의 하루 시청시간은 평균 2.09시간이며,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받은 자원봉사 인정·보상의 종류 수에 있어서 응답한 185명은 평균 1.57개의 인정·보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봉사를 시작한 이래로의 기간에 있어서, 응답한

185명은 평균 69.47개월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 조사에 있어서, 결론에는 각 문항의 평균 값을 대입하였다. 먼저 규범에 있어서, 총 응답자 186명의 평균은 14.77로 나타났고, 신뢰의 평균은 11.44, 사회적 연계망의 평균은 16.70으로 나타났다.

〈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빈도(%)	문항	빈도(%)	문항	평균
조직의 종류(n=186)		교육(n=184)		텔레비전시청 (n=183) (시간)	2.09
병원(명)	52(27.9)	초졸(명)	1(0.5)	자원봉사인정보상 (n=185) (종류)	1.57
자원봉사센터(명)	50(27.0)	고졸(명)	45(24.2)	자원봉사기간 (n=182)(개월)	69.47
복지관 A(명)	39(20.9)	대학재학중(명)	1(0.5)	연령(n=185)	47.79
복지관 B(명)	19(10.2)	대졸(명)	113(60.8)	교육연한(n=184)	15.27
애인생활시설(명)	26(14.0)	대학원석사졸(명)	21(11.3)		
		대학원박사졸(명)	3(1.6)		
성(n=186)		신문구독(n=184)			
남성(명)	35(18.8)	전혀읽지않음(명)	14(7.5)		
여성(명)	151(81.2)	주 1회(명)	12(6.5)	규범(n=186) (5문항, 4점척도)	14.77
연령대(n=185)		주 2회(명)	12(6.5)	신뢰(n=186) (4문항, 4점척도)	11.44
20대(명)	28(15.1)	주 3회(명)	24(12.9)	연계망(n=186) (6문항, 4점척도)	16.70
30대(명)	19(10.2)	주 4회(명)	8(4.3)		
40대(명)	41(22.0)	주 5회(명)	19(10.2)		
50대(명)	73(39.2)	주 6회(명)	7(3.8)		
60대(명)	23(12.4)	매일읽음(명)	88(47.3)		
70대(명)	1(0.5)				

2)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 참여 변

수를 통제하여도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Tolerance value 값을 살펴보았다. 각 독립변수들의 VIF 값은 최소 1.086에서 최고 1.353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표 3과 같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최고치가 0.38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수 7개와 종속변인 15개 모두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최고치가 0.48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3〉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인정 보상	성별	연령	교육	TV 시청	신문 구독	자원봉 사참여
인정보상	1						
성별	-.118	1					
연령	.169*	-.172*	1				
교육	.045	.141	-.003	1			
TV시청	-.072	-.124	.185*	-.103	1		
신문구독	.000	.040	.296***	.216**	.095	1	
자원봉사참여	.228**	-.174*	.383***	.066	-.003	.115	1

주) * p < .05, ** p < .01, *** p < .001

(1)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규범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성별, 연령, 교육, 텔레비전시청, 신문구독, 자원봉사참여 변수를 통제해도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수정 R² 값이 .120로서 변수들이 규범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이 12%이었다. 각 변수 중에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65, p < .05$). 자원봉사 인정·보상은 다른 변수의 통제를 받아도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인정과 보상을 받을수록 규범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감사를 표시하는 인정과 보상을 해줄수록 개인주의는 약화되고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규범의식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4〉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규범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델 (β)
독립변수	자원봉사 인정보상	.165*
통제변수	성별	-.058
	연령	.265**
	교육	.082
	텔레비전시청	-.050
	신문구독	-.090
	자원봉사참여	.098
	상수	12.585
	R^2	.156
	Adjusted R^2	.120
	F	4.366***

주)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연령이 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65, p < .01$). 연령대가 높을수록 규범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웃의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이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 교육정도, 텔레비전 시청, 신문구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 참여가 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표 5의 모델을 살펴보면, 수정된 R² 값은 .064로서 각 변수들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6.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분석결과, 이 모델에서 연령만이 유일하게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335$, $p < .001$).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웃, 친척 및 친구, 정부, 구청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서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교육정도, 텔레비전 시청, 신문구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 참여는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델 (β)
독립변수	자원봉사 인정보상	.043
통제변수	성별	-.020
	연령	.335***
	교육	-.055
	텔레비전시청	-.074
	신문구독	-.118
	자원봉사참여	-.122
	상수	10.917
	R ²	.102
	Adjusted R ²	.064
	F	2.682*

주) * $p < .05$, ** $p < .01$, *** $p < .001$

(3)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

독립 및 통제변수가 종속변수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표 6의 결과에서 수정된 R² 값은 .046으로서 각 변수들이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4.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분석결과, 이 모델에서 자원봉사 참여기간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207, p < .05$).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연계망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짧게 한 사람보다 자원봉사활동을 오래 한 사람이 친구와 이웃이 많은 편이고 모임이나 회원 간의 친교가 활발하고 지역사회 정보도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6〉 자원봉사 인정·보상이 사회적 연계망에 미치는 영향

변수		통합모델 (β)
독립변수	자원봉사 인정보상	.070
통제변수	성별	.106
	연령	.080
	교육	-.100
	텔레비전시청	-.077
	신문구독	-.087
	자원봉사참여	.207*
상수		17.507
R ²		.085
Adjusted R ²		.046
F		2.197*

주) * $p < .05$, ** $p < .01$, *** $p < .001$

조사 분석 결과,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정과 보상이 신뢰, 사회적 연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기각되었다.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서로 돕는 협력적 노력 혹은 상부상

조라는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인정과 보상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의 협력적 노력과 상부상조 정신과 같은 규범이라는 사회자본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창이나 자원봉사인증서의 부여, 언론매체 홍보 등은 자원봉사자 개인의 모범적 행동에 명예와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영향에 힘입어 자원봉사자 개인의 협력의 정신과 상부상조의 규범의식은 더욱 고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감사편지나 감사의 표시와 같은 정서적 보상도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함으로써 개인의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영웅의 행동과 같은 고귀한 행동이자 정신이라고 높이 평가해줌으로써 개인의 이기주의를 약화시키고 규범의식을 더욱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된 교통비 등 약간의 경비를 현금 혹은 쿠폰이나 주차권 등으로 보상해주거나 교육기회를 주고 희생에 대하여 보상해줌으로써 개인주의를 약화시키고 협력의 정신을 일깨운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 검증을 통하여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개인이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조사 분석에서는 연령이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규범과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김명환(2000)은 조사를 통하여 연령이 높은 주민일수록 신뢰가 높고, 집단 내 협력도 높으며, 정보공유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규범과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에 순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자원봉사 참여 기간이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집단 내 협력 및 정보공유의 정도가 높고(박희봉·김명환 2000), 기업 임직원의 자원봉사참여가 조직 내 사회자본인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도 있다(박희봉 2002). 자원봉사 활동이 조직 내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이 연구들과는 다르게, 자원봉사 참여가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기간이 지역사회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를 짧게 한 사람보다 자원봉사활동을 오래 한 사람이 친구와 이웃이 많은 편이고 모임이나 회원 간의 친교가 활발하고 지역사회 정보도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함의

이 연구의 목적 하나는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규범, 신뢰, 사회적 연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는 문제제기와 주장을 검증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은 지역사회의 규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신뢰와 사회적 연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주장에 있어서 일부분이 타당함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자원봉사 인정 보상은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지만(이강현·정진경 2006; 이강현 2001) 조사검증을 시도하지 못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인정과 보상이 여러 가지의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에서 특별히 규범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밖의 신뢰나 사회적 연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보다 일반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통하여 재차 검증함으로써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 연구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밝혀지지 않은 각 요인들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실증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모범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인정·보상하는 일은 지역사회 규범을 형성·강화하며 지역주민들이 이 가치에 순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과 보상을 통하여 격려 받은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려 하고 이웃을 도우려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조직은 자원봉사 인정·보상과 같은 도구의 개발과 실시를 더욱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적 연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를 짧게 한 사람보다 자원봉사활동을 오래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친구와 이웃이 많은 편이고 모임이나 회원 간의 친교가 활발하고 지역사회 정보도 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집단 내 협력 및 정보공유의 정도가 높고(박희봉·김명환 2000), 기업 임직원의 자원봉사참여가 조직 내 사회자본인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박희봉 2002). 이와 같이 분석 단위나 조사대상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 참여가 지역의 사회자본 중에서 어느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풍부한 연구를 통하여 재차 검증될 필요가 있다.

경영학에서 기업의 보상이나 인정이 조직 내 사회자본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검증은 지속되어 왔다(Campbell 1994; Ritter

and Taylor 1997; Leana and Van Buren 1999). 이는 지역사회 사회자본 증진을 위해서도 인정과 보상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헥터(Hechter)나 티트머스(Titmuss)와 같은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은 사회구성원이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가치에 순응하도록 하는데 인정과 보상이 영향을 미치고, 관리 능력 여하에 따라 구성원의 사회에 대한 헌신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의 순응도는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본 연구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 관련 조직들의 관리 노력여하에 따라 지역의 사회자본도 증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측정도구 선정에서 최근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조사대상 표집에 있어서 비 확률 표집의 유의적 표집을 사용하여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주장하기에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 본 연구주제가 보다 정확한 연구 설계를 통하여 재차 검증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이타성과 이기성, 자원봉사 동기, 인정 보상 등의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 지속성, 만족도, 사회자본 등의 상호 관계와 경로 등에 대한 연구로 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과 자원봉사 관리의 접목을 통하여 매뉴얼 수준의 자원봉사 관리 업무 내용이 이론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탄탄한 논리적 고리를 만들고 실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1년 9월 27일 접수, 2011년 11월 17일 수정, 2011. 11. 22일 확정)

참고문헌

- 강철희. 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3). 5-32.
- 권순미. 2004. “단기 자원봉사활동이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원복지활동의 이념과 실천모델』. 65-82
- 김동배, 조학래, 최재성, 최선희. 1998.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운영 실태평가와 지원 욕구.” 『한국사회복지학』. 35. 31-50
- 김연희, 김선숙. 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봄). 103-127.
- 김제니. 2004. 『청소년 자원봉사 사전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효과성』.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선. 2007. 『학교공동체를 위한 사회자본 측정도구 개발 및 적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준, 김안나, 김남희, 이병준, 한준. 2003.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성호·정경은·한지연. 2009. “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 과정 연구.” 『청소년학연구』. 16(3). 181-208
- 박희봉, 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박희봉. 2002.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6(1). 221-237.
- 박희봉, 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서혜숙. 2006.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8

- 양국진. 2002. 『학교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 공동체의식과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오홍석. 2002. “조직의 사회자본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2(2). 25-42
- 유화영. 200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강현, 천희, 최유진. 2001. 『자원봉사센터 운영매뉴얼』. 서울: 볼런티어 21.
- 이강현·정진경. 2006. “자원봉사조직 및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인정·보상 시행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5(1). 101 - 135.
- 이성록. 2000. 『새로운 공동체 영역, 제 4섹터』. 서울: 금영애드컴
- 이지은. 1997. 『청소년의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장희선. 1995.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조하래. 1997.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주성수. 2000. 『시민사회와 제3섹터』.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웅. 2008. 『가정사회자본이 청소년 평생학습 참여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최중혁 외. 2010.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4). 297-324.
- 황영희. 2000. 『중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 전라북도 전주와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Bigley, G., Pearce, J. 1998. “Straining for shared meaning in organizational science: problems of trust and dis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405-421.
- Bolino, Mark C., Turnley, William H., Bloodgood, James M.. 2002. “Citizenship behavior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in organizations”. *Academy of*

- Management Review*. 27(4). 505-522.
- Campbell, C. M. 1994. "Wage change and the quit behavior of workers: implications for efficiency wage theory". *Southern Economic Review*. 61. 133-148.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rad, D and Hedin, D. 1989.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and programs*, Madiso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Croll, Paul. 2004. "Families, social capital and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2(4). 390-416
- D.E.Chambers. 2000. *Social policy and social program*, Allyn and Bacon.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he Free Press.
- Govaart. 2001. *Volunteering Worldwide*. Amsterdam: Netherlands Institute of Care and Welfare.
- Hamilton. S. F., Fenzel L. M. 1988. "The impa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adolescent social development: evidence of program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65-80.
- Heath, Anthony. 1976. *Rational Choice and Social Ex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chter, Michael. 1987. *Principles of group solidar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gg, M. A., Terry, D. J. 2000. "Social identity and self - categorization processes in organizational contex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121-140.
- Insko, C, Wilson, M. 1977. "Interpersonal attraction as a function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903-911

- Kawachi, I., Kennedy, B., Lochner, K., Porthrow,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Health*. 87. 1491-1498.
- Leana, Carrie R., Van Buren, Harry J. 1999.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538-555.
- Leifer, Richard, Mills, Peter K. 1996.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for deciding upon control strategies and reducing control loss in emerging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22(1). 113-137.
- Madhok, A., Tallman, S. B. 1998. "Resources, transactions and rents: managing value through interfirm collaborative relationships." *Organization Science*. 9(3). 326-339.
- McCurley, Steve., Lynch, Rick. 1996. *Volunteer management*. Heritage Arts Publishing.
- Mcknight, D. H., Cummings, L. L., Chervany, N. L. 1998. "Initial trust formation in new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473-490.
- Mullen, B., Copper, C. 1994. "The relation between group cohesiveness and performance: An integr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5. 210-277.
- National Civic League. 1993. *The Civic Index: A New Approach to Improving Community Life*. Denver: National Civic League
-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he, Arvind. 1993. "Messy research, methodological predispositions, and theory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2). 227-268.
- Parsons, Talcott. 1973. Some afterthoughts on gemeinschaft and gesellschaft. In W.J.Cahnman, ed., Ferdinand Tönnis: *A New Evaluation*, Leiden: Brill. 140-150.
-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Putnam, Robert D.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장훈, 강원택, 김학노, 김하영, 유석

- 진, 백창재(역).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 Putnam, Robert D. 1995a.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664-683.
- Putnam, Robert D. 1995b.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Ring, P. S., Van de Ven, A. H. 1994. "Developmental processes of cooperativ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1). 90-118
- Ritter, J., Taylor, L. 1997. "Economic models of employee motiv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79. 3-21.
- Stone, W. 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 Towards a Theoretically Informed Measurement Framework for Researching Social Capital in Family and Community Life". *Research Paper 24*.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Switzer, G. E., Simmons, R. G. Dew, M. A. Regalski, J. M., & Wang, Chi-Hsein. 1995. "The effect of a school-based helper program on adolescent self-image, attitude, and behavior". *Journal of Early Adolescent*. 15(4). 429-455.
- Titmuss, Richard M. 2002. *The gift relationship*,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Tönnis, Ferdinand. 1957. *Community and society*. Translated and edited by Charles P. Loomi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Originally published 1887]
- Van Dyne, L., Graham, J. W., Dienesch, R. M. 1994.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struct redefinition,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765-802
- Veenstra, Gerry., Lomas, Jonathan. 1999. "Home is where the governing is: social capital and regional health governance". *Health & Place*. 5(1). 1-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Volunteer and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Woo, Jung 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s of recognition and reward for volunteer on the norm, trust, and network of community.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whether or not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Volunteer as a independent variables affects norm, trust, and network, with control variables sex, generation gap, education, TV viewing, newspaper reading, and volunteering. The data from 186 volunteers belonging to the social welfare agencies using recognition and reward management for volunteers were collected. This research utilizes descriptiv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calculation employed the use of PASW Statistics 18. The results show that the recognition and reward for volunteer affects the norm. It is found that generation gap affects the norm, trust, social capital, and that volunteering does network.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social welfare agency should manage volunteers through the administrative tools like recognition and reward in order to make community people to decrease the selfishness and free riding, to help each other, to participate for solving community problems.

Key words : social capital, volunteer, recognition and reward for volunteer

